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하라”

전남 건설업계, 징수 지자체에 공문 발송

전남지역 건설업계가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규룡)에 따르면 공사 입찰 때마다 1개 발주 지자체가 받는 5천~1만5천원의 입찰참가 수수료가 연간 3억~6억원에 달하면서 회원사들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되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수수료 폐지운동에 나섰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보성군, 목포시 등 10개 지자체가 수수료를 폐지했으나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여전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회는 내달 초 다시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폐지운동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첨단산업 2단계 개발 본격화

내달부터 토지 보상

광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6월중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29일 “광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6월중에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 총사업비 3천333억원(보상비 1천852억원·공사비 1천481억원)을 투입, 2009년 12월까지 북구 신원동·연제동 일원 62만평을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선 교통계획 후 개발’ 방침에 따라 3.8km의 광로 3-15호선과 2.3km의 광로 2-9호선 등 5개 도로와 2개소의 접속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첨단산업 2단계 개발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는 등 산단 개발을 지원해왔다.

시는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연말안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장용지 선분양해 기업들의 공장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동차·가전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광산업과 금형산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최근 제조업 공기가 활황해지면서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광주로 공장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면서 현재 45개 업체 약 23만평의 공장용지 분양신청이 밀려있는 실정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시설농, 고유가·환율하락 ‘이중고’

수출 전선 ‘흔들’

채산성 악화 55%·출혈수출 26%...환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올 초부터 매일 실적장부를 보니 니켈·크롬 등 원자재 가격과 유가지표는 계속 올라간 반면 채산성은 줄기차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원·달러환율이 94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출을 포기했습니다.”

광주 소촌산업단지 내에서 공작기계를 생산, 미주와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3월까지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다가 4월 들어 손을 들고 말았다”면서 “1·4분기 동안 전체 매출의 25%에 달하는 7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시설농가들이 수출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기협중앙회 광주·전남지회와 산업연구원이 423개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928원까지 내려가면 중소기업들의 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하락에 따라 수익분점에 직면했다는 기업은 54.6%,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는 기업

도 26.0%에 달했다.

하남산단내 B사 대표는 “하남산단과 소촌산단 입주업체들의 경우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생산비는 높아진데다 환율하락으로 수출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면서 “수출을 포기하지 못하고 ‘적자수출’을 감수하는 것은 향후 수출선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김일산 차장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1·4분기 광

주·전남지역의 수출물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12.9%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를 무릅쓰고 ‘출혈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외의 외국통화 이용을 늘리고 환변동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시설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면세유류 가운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유는

지난 1일 기준 평균가격이 1ℓ 당 708원에 달해 2004년 475원, 2005년 570원보다 크게 올라 고스란히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를 기록할 경우 시설작물 농가경영비는 유가가 38.8달러였던 2004년보다 15.0% 증가, 소득을 12.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원·엔환율마저 넉넉기를 하면서 연간 600만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전남무역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무역 관계자는 “올 초 원·환율이 60원 하락해 1·4분기 수출목표액이 35%나 감소했다”면서 “수주가가 높거나 수출량을 늘리는 등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전문컨설팅기관 FMP 오세돈대표는 “올해 원·달러환율이 최저 83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선분양거래 및 환변동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수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핑크리본사랑 마라톤에 4천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이 후원하고 ㈜태평양이 주관한 마라톤은 유방암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니평기자 mjna@kwangju.co.kr

대주·GS건설·두산산업개발 등 ‘빛고을 사업단’

우산구역 주택 재개발 2,400세대 아파트 공급



광주시 북구 우산동 일대가 국내 굴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중앙부에서 광주 대표 신도심으로 거듭난다.

28일 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에서 열린 주민총회를 통해 대주건설, GS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빛고을사업단’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빛고을사업단’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392-2번지 일대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우산구역 재개발지구는 총 3천4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8천234평(15만9천432㎡) 규모에 지하2층, 지상20층 아파트 2천3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우산구역은 호남고속도로, 동문로 등과의 접근성이 좋고, 효동초, 교대

부속초, 동신고,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의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빛고을사업단”의 경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GS건설은 2005~2006년 전국 총 34곳, 3만753세대를 수주하면서 전국 재개발 수주실적 1위에 올랐으며, 소비자행방지수 2년 연속 1위, 2006년 퍼스트브랜드 아파트부문 대상 등을 차지했다.

두산산업개발은 아파트 브랜드인 ‘두산위브’를 내걸고 서울 잠실시영 재건축사업, 광주 계림동 재개발사업,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사업 등 전국 8만여세대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지난 1998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이후 최근 광주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전국 30여곳, 6천세대의 재



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경기도 파주 봉일천 488세대와 순천 용당동 800세대 등의 대주파오레 아파트를 건립중이다.

빛고을사업단 관계자는 “우산구역 재개발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고품격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횃감용 병어 맛보세요”

매월동 수협광주공판장 내달말까지 병어축제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협광주공판장(장장 김대준)이 병어 성어를 맞아 26일부터 6월말까지 병어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기간 동안 공판장은 생산어민 및 산지 유통인이 직접 출하한 병어를 경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값싼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대준 공판장은 “소비자들이 산지에 가지않고도 선도 좋은 횃감용 병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상자당 20, 30, 40마리 등으로 나눠 시중가보다 20~30% 싸게 판매한다”고 말했다.

병어는 산란기인 5~6월 첫째주 생산지인 신안군 비금·임자도 근해에서 많이 잡힌다.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며 비린내가 나지 않아 횃감으로 안성맞춤이다. 문의 (062)655-9666.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홍스페이스 수입가구

hongspace.co.kr
홍스페이스.kr

이태리가구 전문점

- 홍스페이스로 불려 중입시골 해마다 100여명 넘는 손님
- 홍스페이스가 100여명 넘는 손님에게 100% 만족을 선사
- 홍스페이스 수입가구 100% 만족을 선사
- 수입가구 100% 만족을 선사

홍스페이스 226-7565~7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TOUCH 광주총판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TOUCH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스포츠 아슬렛 다이어나 명품관 슈즈얼티샵 100458

한보가구 광주총판본점 061-225-9100